

강의에 나온 것들도 좋은데 AI 활용법과 뭐가 좋은지 추가로 추천해주실 만한 것들 알고싶어요

- AI 활용법 강의가 아니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화형 AI(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등)와 프로그래밍 전용 AI(커서, 클로드 코드 등)를 적극 활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직무로 가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본인 전공 관련 도메인 지식을 살려서 해당 도메인의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공을 제가 모르니 어떤 분야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요. 직무 자체도 워낙 범위가 넓어서, 자신의 직무가 AI를 적용해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 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 능력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충실히 배우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AI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개념 하나하나의 뜻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일을 할 때 바로 생각이 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네, 분명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는 개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여러 번 학습하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적용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개념을 내재화하고 직접 실무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I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AI를 처음접해서 모르겠습니다.

- 기초부터 공부하려면 Bottom-up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 Top-down 방식도 적절히 혼합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전자의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엄청 시간이 오래걸리고 실력도 잘 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기초 실력을 다지면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란 어떤 포트폴리오일까요?

-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여러 기술 스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취직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여러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해본 경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경험이라도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문제해결 경험을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버린 ai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서비스를 예로하면, 내부에서는 수정이나 작성이 가능해야하고, 외부에서는 열람까지만 가능하려면, 접근 인증에 등급도 나누고, 폐쇄성도 갖추면서, 동시에 제한적 접근 개방성도 갖추는 방법, 등이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 측면이 아니라, 현 시점 대한민국은 휴전국이므로, 국가보안 관점에서 소버린 ai 개발을 위해 가져야할 방향성과 중점 개발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여러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공존해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국가대표 LLM 선발전 처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인프라, 데이터, 모델 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산학연 모두가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협력적 접근도 함께 필요합니다. 보안 관점에서는 해당 분야 전공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AI는 축적된 데이터에 의존하지만, 디지털 데이터의 영속성은 물리적 기록물보다 낮다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데이터 보존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의 문제처럼 한 곳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분산된 복수 데이터 센터 운영/데이터 이중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과거에 없던 '전혀 새로운 상황(Black Swan)'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돌파구는 무엇인가요?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극단적 합성 데이터 생성을 통해 시뮬레이션하게 되면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모든 중요한 판단에는 인간이 개입하여 의사결정(HITL)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모델 자체를 실시간 적응형 학습이 가능한 모델로 구축하여, 새로운 상황이나

데이터 등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축적된 데이터 안에서 통계적 최적값을 찾는데, 모두가 비슷하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최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국방 등의 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정답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계산할 수 없는 '비합리적 변수'로서의 인간의 개입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모든 AI가 동일한 데이터에서 동일한 최적해를 도출한다면, 그것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되어 오히려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과 AI가 하이브리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AI가 최적안을 제시하지만, 인간이 의도적으로 예측을 회피하는 방향(최적안 중 가장 후순위) 선택하여 오히려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 이는 기술적만이 해결책이 아니고, 인간의 개입이 반드시 있고 이를 활용하면 예측하지 못한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